

SPECIAL REPORT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혁명의 본질 '아버지 죽이기' 퀴의 머큐리도 부르짖는다

〈전문기자 취재기〉

'4차 산업혁명'이 수상한 또 다른 이유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중요하게 이야기 되기 때문이다. 외국학자들과의 대화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한다. 뭘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다.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독일의 비즈니스맨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81)이다. 세계 각국의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경제장관·기업가·교수·언론인들이 매년 스위스 시골의 휴양지 다보스에서 모이는 최고급 사교클럽, 일명 '다보스포럼(Davos Forum)'을 만든 사람이다. 화려함과 명성에 비해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비판에 고심하던 클라우스 슈밥이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콘셉트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독일에서 이미 논의되던 '인더스트리 4.0'의 변형에 불과하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독일의 전통적 제조업이 위기에 처하자 생산과정의 자동화를 적극 논의해온 구호가 바로 '인더스트리 4.0'이다.

어은 것이다.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까지 설치했다. 참으로 낡고 애매한 개념으로 여러 사람들이 바쁜 요즘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박근혜 정부는 '산업화 세대'를 대표했다. 산업화 시대의 낡은 이데올로기로 '창조경제'를 부르짖었으니 헛갈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산업화시대의 완벽한 몰락과 더불어 등장한 문제인 정부가 지극히 낡은 산업화시대의 구호인 '산업혁명'의 오류에 불과한 '4차 산업혁명'을 또 다시 부르짖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3차'든 '4차'든 아주 낡은 '산업혁명'이란 개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대중을 호도하기 아주 쉬운 개념이다. 일단 숫자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뭔가 객관적이라고 느낀다. 더구나 4차까지 진행되었다니 더욱 믿을 만하게 느낀다. 그러나 아무도 그 내용이 뭘지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다. '4차' 뒤에 따라붙는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이란 개념을 더욱 신뢰롭게 해준다. 증거 기관 발명의 '산업혁명'은 누구나 익히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들 아무 생각 없이 속는 거다.

'산업혁명'이 아니라 '지식혁명'이다. 증기기관 발명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도 '산업혁명'이 아니라 '지식혁명'이라 해야 옳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기계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를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이라 처음 명명한 이는 영국의 경제학자 아널드 토인비(Arnold Toynbee·1852~1883)다. 우리에게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유명한 영국의 사회학자 아널드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1889~1975)는 그의 조카다.

오늘날 그의 '산업혁명' 개념은 여러 모로 비판받고 있다. 우선, '영국의 산업혁명'이 과연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산업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과정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오랜 시간에 걸친 점진적 과정의 산물일 뿐 '혁명'이라고 이름붙일 만큼의 급속한 사회변동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증기기관의 발명'과 같은 기술의 진보를 '산업혁명'의 결정적 원인으로 설명하는 '기술 환원론' 또한 토인비의 '산업혁명' 개념이 가진 결정적 결함으로 비판받는다.

'기술환원론'은 '산업혁명이 왜 동양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묻는 '니덤의 질문(The Needham Question)'에 대해

산업 아닌 지식혁명
과학과 기술 통합한
산업혁명 이어
예술과 기술 융합한
2차 지식혁명
잡스도 바우하우스의
후예라 자처
'창조'는 한국에
가장 절실한 개념



데사우의 바우하우스. 초대 교장이었던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1883~1969)가 설계했다. 독일 모더니즘 건축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사진·윤광준)

전혀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세기까지만 해도 중국은 유럽에 전혀 뒤지지 않는 과학과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수학과 천문학 분야는 동시대 서양의 과학 지식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기술의 진보'가 '산업혁명'의 원인이라면 중국에서 '산업혁명'에 상응하는 변화가 먼저 일어났어야 한다.

난 서구사회의 변화를 토인비는 '산업혁명'이라 정의했다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통합'을 가능케 한 '산업계몽주의'라는 지식혁명의 결과가 서양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케 했던 '대분기'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과학혁명'은 '지식혁명'의 하위분야일 뿐이다.

'과학과 기술의 통합'이라는 지식혁명은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그리스·로마의 낡은 세계관과 투쟁했던 '편지 공화국(republic of letters)'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편지 공화국'은 '편지'를 통해 소통했던 당시 유럽의 지식공동체를 지칭한다. 국경을 초월해 소통했던 '편지 공화국'은 실제했던 집단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편지 공화국 지형도(Mapping the Republic of Letters)'라는 프로젝트를 수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다. 관찰과 실험으로 무장한 16, 17세기 편지 공화국의 지식인들이 '고대인과의 투쟁'이라는 '살부'의 실천을 통해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극복해 새로운 유럽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 조엘 모키르의 주장이다.

이 설명모델에 따르면 동양은 '과거제도'에 묶여 '고대인과의 투쟁'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서양에 크게 뒤지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과학과 기술의 통합'이라는 '지식혁명'이 동양에는 부재했다는 이야기다.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환원론적 설명이나 '영국 예외주의' 보다는 훨씬 설득력 있다. '과학과 기술의 통합'이 '1차 지식혁명'이었다면, 독일 바우하우스에서 일어난 '예술과 기술의 통합'은 '2차 지식혁명'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물론 바우하우스는 그 시대의 문화적 '갈매기'였다. 당시 1차 세계대전 전·후로 유럽을 휩쓸었던 '살부'의 지식혁명이 갈



때기처럼 바우하우스로 흘러들었다. 독일의 바우하우스는 불과 14년 유지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방향은 엄청났다. 오죽하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까지 바우하우스의 후예임을 자처했을까?

바우하우스는 인류 최초의 '창조학교'였다. '창조'는 '창조경제' 따위로 인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착오적 '기술환원론'으로 대체될 수도 없는 단어다. '창조'야말로 오늘날 미래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에 가장 절실한 개념이다. 그래서 '바우하우스'인 것이다.

〈광주일보와 중앙SUNDAY제휴기사입니다〉

김정운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심리학으로 디플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베를린 자유대학교 전임강사, 명지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2012년 교수를 사임하고 일본 고토 사기예술대학교에서 일본화를 전공했다. 2016년 귀국 후 여수에 살며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작은 배를 타고 나가 눈먼 고기 도 잡는다. 저서로 '에디톨로지'가 꿈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남자의 물건'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는 낡은 이데올로기 비즈니스맨으로는 탁월하지만, 미래학자라고 보기에는 사뭇 빈약한 학문적 소양을 가진 클라우스 슈밥의 이 어설픈 개념이 느닷없이 유독 한국에서만 각광받게 된 이유는 도대체 뭘까? 박근혜 정부의 몰락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부르짖었다. '창조경제'를 전담하는 경제부처도 새로 만들었다.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미래창조과학부'다. '미래'도 애매한데, '창조'와 '과학'까지 연결한 거다. 행정부는 매우 구체적인 일을 실행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렇게 온갖 애매한 개념을 다 몰아넣으니 무슨 일이 가능할 리 없다.

박근혜 정부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문화융성' 정책이다. 광고를 찍던 CF감독에게 온 나라의 문화정책을 맡기고 '말 타는 처녀'나 지원했다. 그러나 '문화융성' 정책보다 내용적으로 더 황당했던 것이 바로 이 '창조경제'다. 전국을 돌며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만들었다. 대기업의 역할을 잡아 끌어 지원자금을 만들었다. 전형적인 산업화시대의 방식이다.

박근혜 정부가 몰락하자 '창조경제'라는 단어의 사용은 금기시되었다. 그러나 미래 지향적 구호는 여전히 필요했다. 바로 이름을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비겁고 들

- 1. 바우하우스 정신을 계승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
2. 베를린 바우하우스 박물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필자 일행. (사진 중앙포토·윤광준)

Advertisement section with multiple boxes for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cludes '개업·성업 안내' (Opening/Business Announcement) and various service listings like '클로버 부동산', '루팡닭강정', '토산철학원', etc.